



금주의 말씀

수정10-11절



변의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카리브해 동쪽에 있는 서인도제도의 섬 바베이도스(Bartados)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 사람들은 바베이도스의 환경이 양봉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벌을 대량으로 가져와 꿀을 채취했다. 그런데 한참 꿀을 잘 만들어내던 벌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예 일하지 않고 놀고 있었다. 곤충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원인은 기후에 있었다. 바베이도스는 중남미 기후로 1년 내내 여름 날씨였다. 그런데 가져온 벌들의 원래 지역에는 겨울이 있는 나라이다. 원래 살던 지역에서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벌들이 꿀을 모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벌들은 겨울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벌들은 결국, 꿀을 모으지 않은 것이다. 인간도 고난의 겨울이 없이는 성숙하지 못한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고난의 겨울이 있었다. 고난은 당시에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유익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한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당시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담판을 짓고, 결국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다.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을 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모세보다 너무나 어리고 부족한데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는가? 여호수아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똑바로 하고 지도자의 자라에 서 있었다.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토미 라소다는 박찬호 선수를 발탁해 메이저리거로 키웠던 인물이다. LA 다저스 감독으로 20년을 헌신한 뒤 은퇴할 때 한 기자가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라커룸에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8연승을 하든 8연패를 하든 나는 언제나 한결같은 표정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다. 감독의 걸음걸이가 호트러지고 낙담한 표정을 보이면 팀 전체에 나쁜 기운이 퍼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약속했으나 걱정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다. '주었노라'라는 단어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반대편에

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비전을 세우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히브리어 11: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실상으로 내가 믿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확실히 눈앞에 나타난 증거물로 내가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적이지만 현실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미래를 현재로 끌어 올 수가 있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은 비전을 줌과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와 미래가 동일 선상에 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 베드로후서 3: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 후의 일과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 같고, 하루 동안의 일과 천년 동안의 일이 동일시한다.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가 과거이고, 미래가 현재이고, 미래가 과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넷째,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가 주신다.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

멀리 내다 보는 눈

있다. 그런데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문법적으로 맞게 고친다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주었다고 한다. '주었노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테'라는 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미 벌써 주었고, 지금도 주어지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밟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 땅은 내가 네게 이미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밟로 밟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이다. 반대로 밟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는 밟는 자의 것

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민수기 23: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야고보서 1: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화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적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은 과거와 현재

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창세기 1-11장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신앙의 결말을 역할을 한다. 한때 유능하고 성공적인 복음전도였다가 불신의 늪에 빠져,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난 찰스 템플턴(1915-2001) 이야기를 해보자. 템플턴은 1996년에 《하나님과 나의 삶》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 책에서 템플턴은 이렇게 주장했다. "기독교가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나는 기독교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다양한 입장에서 시대착오적이며,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비진리로 밝혀진 믿음을 전파하며, 이를 공공연히 지지하기 때문이다." 종교전쟁(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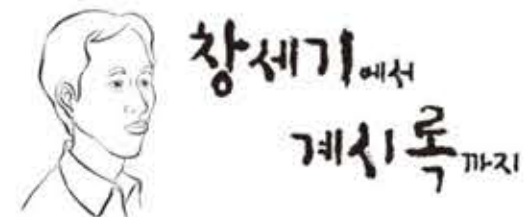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그 영향은 1939년까지 지속되었다. 경제 대공황을 막 벗어난 1940년대에 미국에서는 복음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체육관으로 몰려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부흥의 국면에서 (1915년에 태어난) 찰스 템플턴은 젊고 유능한 복음 전도자로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당시에 템플턴은 또 다른 유능한 설교자였던 빌리 그레함을 능가하는 명성을 누렸다고 한다. 캐나다 토론토의 예비교회를 개척하고 빠르게 성장시킨 찰스 템플턴은 1945년 조직된 국제 십대선교회(YFCL, Youth For Christ International)의 세 명의 부회장 중 한 명이 되었다. 템플턴은 자신의 친구였던 빌리 그레함을 현장 사역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템플턴은

동역자들과 함께 미국과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찰스 템플턴에게 모든 것들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템플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다. 템플턴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성경을 읽을수록, 기독교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템플턴은 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했다(1948년). 그러나 프린스턴에서의 신학 공부는 템플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커녕, 오히려 템플턴의 신앙을 더욱 약화시켰다. 당시의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찰스 호지(Charles Hodge, 1797-1878)와 벤저민 워필드(1851-1921)는 템플턴의 불신앙적 태도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찰스 호지는 창조지 하루를 수백 만 년이라 주장하였으며, 벤저민 워필드는 다윈의 진화론까지도 수용한 신학자였다. 창세기 1-11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믿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고, 목사직을 반납하고, 양심선언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바른 행위이다. 찰스 템플턴은 그렇게 했다. 진화론이 교회와 신학교로 침투하여 기독교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진화론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며, 진화론자들의 신념이며 믿음이며 종교일 뿐이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유신진화론을 따르는 목사의 대부분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밝히지 못한다.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찰스 템플턴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양심적인 사람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87.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하심(요21:15~23)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붙였던 이름이다(요1:42). 예수님이 지어주신 반석(베드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요18:17, 25, 27) 이름에 말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다정하게 부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부하던 베드로의 자신감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요13:37). "주여 그러하옵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신적 사랑, 헌신적인 사랑(아가페)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애정(필로에)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음에도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어린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였다. 이처럼 세 번이나 같은 의미의 질문을 하신 것은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명예를 확실히 회복시켜 주고 베드로에게도 자신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한 배려였다. /그림=김창남 화백, 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한국청조개혁회 광주전남지부

독일 슈피겔(Spiegel)지 표지(2019.4.20.)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림과 함께 "누가 그것을 믿을까?(WER GLAUBT DENN SOWAS?)"라는 표제가 붙었다. 이 기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은 55%,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4%였으며,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61%, 개신교 신자는 58%, 비그리스도인들은 22%이었다고 한다. 만이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즉, 독일의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신은 믿지만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39%이고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그 비율이 42%라는 말이다. 미국 버지니아 주 로어노크에서 발행되는 로어노크 타임스(Roanoke Times) 1999년 4월 4일 판에, 이런 글이 실렸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과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휴 로스와 같은 '점진적 창조론자(Progressive Creation)'들은 '빅뱅 이론'이나 오래된(수십억년) 연대로 추정하는 '증거'들에 기초하여 창세기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젊은 지구와 창세기 1-11장을 가르치는 것은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

교회건물 매매 · 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교회 매매

- 위치 : 서구 화정동
- 면적 : 51평
- 금액 : 3억 9천만원(대출9억58만원 별도)
- ※차량(통고차) · 고급 비품 포함

010-4875-3474

교회 매매

- 위치 : 북구 두암동(반지하)
- 면적 : 100평
- 금액 : 2억 7천만원(조정가능)
- ※기도원 적합
- ※모든업종가능

010-2620-2654

교회 임대

- 위치 : 장성읍
- 면적 : 예배당 40평 / 20평(2층)
- 금액 : 보증금 700만 월75만원(조정가능)
- ※예배당 사용시 보증금 500만 월60만(조정가능)
- ※비품 상당후 결정 ※테라스 10평 사용가능
- ※장성을 농업중앙회 옆 / 터미널 · 장성역 근처

010-2608-3075

예배당 매매

- 위치 :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 면적 : 대지 90평, 건물 22평
- 금액 : 1억2천만원
- ※담양 메타세이아여거리에서 5분
- ※바로 앞에 깨끗한 우물있음
- ※텃밭있고 동네155가구 ※1년전 리모델링

010-5630-4531

건물 임대

- 위치 : 서구 내방로 209번길4(상일여고 옆)
- 면적 : 43평 (병3개, 화장실 2개, 대청거실, 모던한 주방, 거실 천정형 에어컨, 안방 별도 에어컨)
- 금액 : 보증금 3천원 / 월 100만원
- ※별도의 권리금 없음

010-8430-5515

교회 임대(반지하)

- 위치 : 서구 내방로 209번길4(상일여고 옆)
- 면적 : 76평
- 금액 : 보증금 1천만 / 월 7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 ※비품은 없는 상태임

010-8430-5515

교회 임대

- 위치 : 북구 임동(임동사거리 부근)
- 면적 : 80평(2층)
- 금액 : 보증금 2천5백만 / 월 80만원
- ※시비 있음
- ※3층 80평 (추가 사용도 가능)
- 보증금 2천만 / 45만원

010-5084-2002

교회당 건물 매매

- 위치 : 광산구 우산동
- 면적 : 대지 185평 (교육관, 식당) 2층-본당 90평 3층-약18평 별관-20평 사택
- 금액 : 9억5천만원 ※시설비품, 성도 있음

010-2646-2691

교회 임대/매매

- 위치 : 남구 진월동 대주2차아파트 상가2층
- 면적 : 34.5평 (예배당, 주방겸 교육관)
- 금액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임대가능) 1억2천만원(대출 3천2백만 포함)
- ※상물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 ※리모델링, 교통, 주차편리

010-2200-8905

교회상가건물 매매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군영로 182번(상가 4층)
- 면적 : 대지 62평, 건물 131평
- 1층 - 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의점, 카페 가능)
- 2층 - 교회 / 3층 - 조정 사무실 / 4층 - 사택
- 금액 : 6억(조정가능) ※교회비품무로로 드림(바탕예배가능)
- ※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복지시설, 타업종가능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음

010-4154-7945

교회 임대

- 위치 : 북구 팔사로 180 / 3층 (오아시스출발점)
- 면적 : 약 40평(실용수)
- 금액 : 시설권리금 7백만(조정가능)
- 보증금 4천만 월50만(부가세별도) / 권리비 5만
- 보증금 3천만 월55만 / 부가세관리비 25만
- ※전세배달도사(가스보일러, 시설비, 화장실, 샤워실, 단독 2개 냉난방기)전정함

010-2391-1663

교회당 임대

- 위치 : 북구 우산동(2층)
- 면적 : 40평
- ※깨끗하게 리모델링 됨
- 금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비품 상당 후 결정

010-3618-5946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 광산구 수원동
- 면적 : 대지 656㎡ 연건평 1505㎡ 지하1층-주차장 492㎡ 지상1층-본당 376㎡ 2층-교육관 385㎡ 3층-식당 251㎡
- 금액 : 상당후 결정

010-7619-1491